

장성은 지금 울긋불긋 꽃대궐... 지천에 즐길거리

20~21일 진원면 유채꽃축제... 5월24~26일 '길동무 꽃길축제' 말 타고 유채꽃밭 둘러보고 난타 공연·마술쇼·현장 노래방 즐겨

봄기운이 절정에 오른 장성군 곳곳이 울긋불긋 꽃대궐 차린 동네로 변신해 상춘객들을 부른다. 장성군은 오는 20~21일 진원면 산동리 일원에선 '유채꽃축제'를 열고 방문객을 맞는다. 이번 축제에서는 마을 입구부터 이어지는 1.2km 구간 유채꽃밭을 '인생 사진 명소'로 꾸미고, 말 타고 유채꽃밭 둘러보기를 비롯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든 낭만 가득한 체험거리 부스를 선보인다. 즐길거리도 많다. 난타 공연, 마술쇼, 풍선아트, 폼바, 현장 노래방 등 방문객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로 축제의 흥겨움을 더한다. 이어 오는 5월 24~26일에는 장성 대표 봄축제 '길동무 꽃길축제'가 화려하게 막을 연다. 올해는 옛 공설운동장 부지를 '황룡정원 잔디광장'으로 새롭게 조성해 축제장으로 꾸몄다. 물빛공연장 음악분수 앞에 무대를 만들고 잔디광장에는 여유롭게 앉아 공연과 황룡강 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부채꼴 모양의 '소풍(피크닉) 관람석'을 설치한다. 대표 꽃축제라는 명성답게 코스모스, 꽃양귀비, 해바라기 등 알록달록한 봄꽃도 풍성하게 피어난다. 황룡강변 3.2km 구간이 화사한 봄꽃으로 물들어 장관을 연출한다. 지난해 황룡강 가을꽃축제에서 큰 찬사를 받았던 '야영(캠핑)+피크닉' 콘셉트도 이어간다. 올해는 어디서든 자유롭게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책을 비치한 '북 캠프'를 계획하고 있다. 가장 이목을 끄는 변화는 '뮤직 페스티벌'이다. 주말인 25일 오후부터 밤까지 다양한 음악인들의 연주가 귀를 즐겁게 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아름다운 봄꽃과 매력적인 즐길거리가 가득하도록 내실 있게 축제를 준비하겠다"며 "올해 처음 열리는 진원면 산동리 유채꽃축제와 새로운 변화에 나선 길동무 꽃길 축제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 대표 봄축제 '길동무 꽃길축제' 주무대인 황룡강변.

미세먼지 배출 영세사업장 시설비 지원

화순군, 4~5종 대기 배출 기업에 설치비 90%... 19일까지 신청

화순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소규모 사업장이면 관련 시설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화순군은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 등 노후화된 방지시설 설치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총사업비는 3억8500만원으로, 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화순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 4~5종 사업장이 우선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1~3종도 지원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2022년 5월3일)으로

4~5종 대기 배출 사업장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대해 실시간 운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기기 부착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기 배출시설 신설·중설에 따라 신규 방지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과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정부(중앙과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화순군 환경과(061-379-3594)로 하면 된다. /화순=배재정 기자 byj@kwangju.co.kr

함평군, 집중호우 대비 하천 263곳 정비



함평군 관계자가 하천 방재시설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은 여름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역 국가하천 3곳, 지방하천 18곳, 소하천 242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함평군 합동점검반은 방재시설물의 위험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을 정비할 방침이다. 제방과 호안 등 구조물의 관리상태, 하천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을 없애고 하천을 불법적으로 점유한 상황을 확인한다.

함평군은 방재시설물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즉시 현장 조치할 계획이다.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보수와 보강을 추진하고 이후 중기 하천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올여름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기상전망에 따라 함평군은 하천 인근 마을과 농경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근무체계, 응급보수 장비 대기 등도 진행한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병영서 불고기 파티하고 사은품 받고

돼지불고기거리 방문의 달 사은 행사... 15~21일 식당 6곳

강진의 대표 관광행사인 '불금불파'를 앞두고 병영 돼지불고기거리가 '방문의 달 감사' 행사를 진행한다. 강진군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병영 돼지불고기거리에서 방문의 달 행사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행사 해당 식당은 배진강, 수인관, 설성식당, 병영연탄불고기, 병영 서가네, 불금불파 불고기집 등 돼지불고기 전문 음식점 6곳이다. 이들 식당은 음료수를 무료로 제공한다. 배진강, 병영 서가네, 설성식당, 불금불파 불고기집은 5만원 구매 때 음료수 1병을 주고, 병영연탄불고기, 수인관은 금액 상관없이 음료수 1병을 준다.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에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사은품을 준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당일 결제한 증빙내역을 병영5일시장 안 진행본부에 내면 된다. 3만원 이상 구매 때 천가방, 5만원 이상 구매 때는 다화용기·보온보랭기·방·밀폐용기 중 1개, 10만원 이상 구매 시 커피·다화용기 꾸러미를 준다. 병영 돼지불고기거리는 지난 2019년 지정된 남도음식거리 중 하나이다. 예로부터 병영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돼지불고기를 내오는 전통에서 돼지불고기 음식 문화가 시작됐다. 질 좋은 돼지고기에 양념을 묻혀 연탄불에 구워낸 맛이 일품으로 알려졌다. '불타는 금요일엔, 불고기 파티' 불금불파 행사는 이달 19일부터 10월26일까지 매주 금·토요일(7~8월 제외) 진행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나주시, 한우 혈통 개량 '축산 1번지' 굳히기

2억 투입 우량암소 선발·관리 9월 전남 으뜸한우 경진대회

나주시가 한우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9월 '전남 으뜸한우 경진대회'를 열어 전남 축산 1번지 명성을 굳힌다. 나주시는 최근 전남도 '2024년 으뜸한우 송아지 브랜드' 사업에 선정돼 한우 개량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1억원 등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으뜸한우 사업은 혈통이 등록된 고능력 번식 암소 농가에 유전 능력 검사, 선형심사 등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이다. 우량암소와 송아지를 선발·관리하고 으뜸 한우 브랜드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나주에서는 전체 한우 5만8334마리 중 70% 비중인 3만5724마리가 암소이다. 우량암소 생산을 위한 최적지로 나주가 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주시는 나주축협, 종축개량협회, 한우협회 등 관계 기관·단체와 협업해 이달 중 '으뜸한우 사업 설명회'를 열고 참여 축산농가를 모집할 예정이다. 축산농가들은 선형 심사와 친자 확인 등을 거쳐 으뜸한우 송아지에 선발된다. 오는 9월에는 나주축협 우시장에서 '전남 으뜸



윤병태(오른쪽 두 번째) 나주시장이 나주축협 우시장을 찾아 우량암소 생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한우 경진대회'를 열어 명품 한우 육성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는 으뜸 한우 사육 및 생산·유통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만, 관련 산업이 부족하고 특히 나주 한우의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

는 자체 상표가 없다는 점이 늘 아쉬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축산 1번지로서 나주 한우 브랜드가 전국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담양 꽃중년, 문화예술로 '청춘 리턴'

담양군문화재단, 19일까지 운영 단체 모집...상담·교육 지원

중년들이 문화예술로 활력을 찾도록 하기 위한 담양군문화재단 '청춘리턴즈'가 올해도 진행된다. 재단법인 담양군문화재단(이사장 이병노 담양군수)은 시니어 문화예술 활성화 공모사업 '청춘리턴즈' 운영 단체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년층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와 특징을

담은 맞춤형 문화예술 행사를 운영할 단체를 모집한다. '청춘리턴즈'는 담양지역 중년층의 문화예술 향유와 복지를 위해 지난 2021년 시작했다. 올해는 '문화와 예술로 청춘을 되찾다'를 주제로 진행한다. 담양군은 선정된 운영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상담과 교육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담양에서 문화예술 분야로 활동하는 단체라면 사업 신청할 수 있다. 담양군문화재단의 기획 관련 교육 수료자라면 점수를 더 준다. 담양군문화재단 관계자는 "지역 문화 소외계층인 지역 시니어가 이번 청춘리턴즈를 통해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문화재단 홈페이지(damyangcf.or.kr) 내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문화정책팀(070-4493-3481)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암 극복 사례·치료 경험 공유 장흥군,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운영

19일~7월까지 매달 운영

장흥군은 오는 19일부터 7월까지 집에서 암을 이겨내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재가암환자 자조모임'을 매달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재가암 자조모임에서는 환자와 가족 간 암 극복 사례와 치료 경험을 공유한다. 이를 통해 재할 의지를 북돋고자 한다. 참가자들은 우울증·불면증 관리 교육과 아로마 치료, 웃음 치료, 항암 발효 식초 만들기, 마음건강치유센터 체험(두피 안마·항암 약죽·온열 치료·뜸 치료) 등으로 구성됐다. 장흥군은 다양한 행사·교육을 만들어 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암 질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서적 지지를 이어갈 방침이다.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참여는 061-860-6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흥군 보건소 관계자는 "재가암 자조모임이 재가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작은 위안과 격려가 돼



장흥군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참가자들이 암 질환 치료를 위한 정보를 얻고 있다. <장흥군 제공>

관리와 극복 의지를 높일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암 환자를 위한 암정보 교육과 정서 지

지를 연구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